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

-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

A Study on Adolescents' Violence against Parents*

- With Home Environment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 전공
석사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지영숙

Dept. of Home Management,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 : Jun, Hee-Jung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 : Chi, Young-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had a greater effect on adolescents' violence against parents.

The results of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

The victims of violence are mainly mothers. The socio-economic status didn't influence on the degree of violence against parents. The adolescents of the extreme family type used more serious violent behavior. The higher the degree of observed and experienced violence is, the higher the degree of violence against parents. Also, the higher the degree of home education is, the lower the degree of violence against parents. Of all variables, the observed violence and structure-environmental variables account for 37.6% of adolescents' violence against parents.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showed that birth-order didn't affect violence against parents. The victims of violence were mainly stepmothers and stepfathers. These parents' educational attitudes were disagreement in parents, seriously inflicted corporal punishment and were indifferent to adolescent. Also, interviewed adolescents were observed and experienced violence in home and used violence against others.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폭력행위는 극히 다양하고 그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륜을 거부한 채 인간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폭력행위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존속상해 및 살해가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정상적인 인간의 행위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형태의 폭력행사는 단지 한 가족 내에서의 존속폭행이라는 독립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파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고, 여러측면의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법률 제5487호). 이 법률의 제정취지는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이다(법제처, 1998). 종래에는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가정 내 폭력 행위에 제3자나 국가기관도 개입,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강제처분과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 본인도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가정 내적인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앞으로 그에 따르는 가정폭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폭력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자녀학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 아마도 유교사상을 중요시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부모폭력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거나, 들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모든 폭력, 즉 아내구타나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특히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하는 가족원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꽤 흔한 현상으로 발표(김현우, 1995)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 내 청소년폭력이 위협수위라는 신문기사가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1997)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병의원과 상담소의 청소년 상담사례 2만2천 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천8백여건(8.4%)이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천5백여건(85%)은 폭언이나 기물던지기 등 비교적 가벼운 폭력행사에 그쳤지만 흥기로 위협하거나 실제 부모를 때린 경우도 2백여건(11.2%)에 달했다. 그리고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청소년의 38.5%가 평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청소년들이며, 이들은 주로 권위적인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니를 두고 있고, 성격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소심하면서 지나치게 성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중앙일보, 1997, 3월 16일자). 이렇듯 청소년의 부모폭력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개인 내적인 특성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가정내 청소년폭력은 더 이상 남의 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이다.

그동안 효를 근본으로 하던 유교사상의 후퇴와 서구 개인주의의 득세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문제를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만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가족이라는 현실의 맥락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가정환경은 가정의 지위환경, 가정의 구조환경과 가정의 교육환경으로 나누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가정교육을 비롯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청소년의 부모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환경 조성의 지침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폭력

Mayhall과 Norgard(1983)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족간에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이 정의는 가족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다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가정폭력 중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가하는 부모폭력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가족 내 위계상의 권력이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하는데 반해 부모폭력은 가족 위계상의 권력이 적은 자가 더 많은 자에게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른 가정폭력과 구별되어진다(Peek, Judith & Kidnell, 1985). 그러나,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부모폭력에 대한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통 부모폭력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일반적인 가정폭력의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한다. 많은 가정폭력의 이론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다고 보여지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절-공격가설(Dollard, 1939)은 좌절이 공격행동에 선행하는 감정적 준비상태를 이루고 그 결과로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Berkowitz는 좌절적인 사건은 좌절된 유기체로 하여금 공격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좌절이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공격성은 좌절에 대한 반응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고, Moyal은 외적 통제 신념이 강할수록 가상적인 상황을 제시했을 때 외적 요인에 비난을 돌리는 반응을 택했으며 이는 적대적인 환경 및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서미경, 1997, 재인용).

둘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아동들의 공격성은 공격적인 모델을 관찰하고 그 모델이 언제 강화받는지를 주시함으로써 학습된다고 본다(Bandura, 1973). 이런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보면 가족성원간의 신체적 공격은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의 모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그런 행동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 준다(Kalmuss, 1984).

Berg(1994)는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와 비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가 현재 부부관계에서 폭력을 더 잘 수용하고 실제 배우자 폭력도 더 많다고 했다.

셋째, 교환이론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보상을 추구하고 벌과 대가를 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전병재, 1991). 가정폭력에 적용하면, 폭력행동이 있을 때 희생자측에서 잘못했다고 빈다든가 무조건 요구를 들어주는 등의 보상적 반응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른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며 주어진 보상이 컸을수록 폭력의 빈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은 사회적 통제가 어렵고 가족 내에서 얻고자 했던 보상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으므로 보상을 얻기 위한 폭력적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반드시 폭력적 행동에 대한 보상적 반응만이 폭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폭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상치 않았던 벌이 주어진다면 원래의 보상을 얻기 위한 더 큰 폭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Gells & Straus, 1979).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의 개념과 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타당한 개념 정의 및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정환경

가정환경이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근접한 생태적 환경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모든 조건과 자극과 그 작용"을 의미한다(유안진, 1994). 황정규(1964)는 가정환경을 물적환경(거주지, 가옥, 문화적 시설)과 인적환경(가족관계, 가족 분위기)으로 나누고, 정원식 등(1989)은 가정환경을 시위환경, 구조환경, 과정환경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정의 지위환경의 주요 구성요소는 양친의 상태, 거주지의 생태적환경,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구성, 가족생태 등이다. 가정의 구조환경으로는 문화적 상태, 영양 및 위생상태, 언어모형, 강화체계, 가치지향성, 학습체계, 집단특성 등을 들 수 있다. 과정환경

은 종래의 심리적 환경이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조건이나 자극과의 상호작용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으로 지위환경이 정적인 상태를 전제로 한 변인이라면 과정변인은 동적인 환경변인이고 심리적인 성격을 지니며 인적·물적조건이나 자극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왕석순(1996)은 가정환경을 가정의 지위환경, 가정의 구조환경, 가정의 문화환경의 3가지 환경변인으로 분류하였다. 가정의 지위환경은 가족구성원 개인의 연령 및 성별지위와 형제지위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괄하는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구조환경은 가족원에게 작용하는 외적조건과 자극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적 상태를 의미하며 인적요인과 물적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의 문화환경은 가족의 심리학적 환경으로 가풍(가훈)이나 그 가정이 지향하는 삶의 양식인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 교육관, 가정교육의 태도 등을 지칭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가정환경에 대한 개념과 분류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을 가정의 지위환경, 가정의 구조환경, 가정의 교육환경의 3가지 환경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가정의 지위환경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직업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말한다. 한 가정이 가진 사회경제적 조건은 부모가 그의 자녀에게 부모본인이 속하는 계층의 기대와 준거를 요구함으로써, 각 계층지위에 따라 부모는 물론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다(신태창, 1984)고 보기 때문이다. 가정의 구조환경은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체계화되어 있는 구조적 상태로서 가족체계내의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과 관련된 구조적 특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가족체계 내의 구조적 특성을 유형화한 가족체계유형을 통해 가정의 구조환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정의 교육환경은 청소년의 부모 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환경으로 부모가 행하는 자녀교육과 가정 내에서 관찰하거나 경험하는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은 반드시 부모의 계획적인 의도로 이루어지는 교

육뿐만 아니라, 의도되지 않았거나 또는 의도와는 관련없이 발생하는 그의 교육력으로 인해, 다른 어떤 유형의 교육도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간형성에 기여하는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3. 부모폭력과 가정환경

Peek, Judith, Kidwell(1985)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폭력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여겨지는 가족구조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스타일 중 처벌적이면서도 엄격하지 못한 통제스타일과 폭력적인 통제스타일이 가장 많은 부모폭력을 야기시키며 부모와의 정서적 밀착도가 적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혹은 부모-자녀간의 동기가 적을수록 부모폭력은 더 많다고 했다. 즉 가족결속력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폭력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부모폭력이 더 많다는 것이다.

Libon(1989)은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부모를 구타한 집단과 부모를 구타하지 않은 집단 각각 30명의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 공감(empathy)과 이탈(disengagement)을 비교·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구타 집단에 비해 구타 집단에서 가족결속력의 이탈수준이 약간 더 높았으며 가족 적응력은 두 집단 모두 구조화된 상태를 보였다고 했다. 부모로부터의 폭력관찰과 경험은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미경, 1997, 재인용).

Narita(1985)는 일본에서 부모폭력의 문제로 정신과에 온 아동 및 청소년 13사례를 분석하여 핵가족과 대가족 같은 구조적 차이가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했는데,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족의 경제상황, 부모의 교육정도 역시 일관된 결과로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출세한 아버지, 교육배경이 높은 어머니가 많다는 보고가 근소하지만 우세했다. 그외에 출생순위로 보아서는 장남이거나 한 자녀인 경우가 많은 점들이 관찰되었으며 이들에게서 패륜적 행동 외에도 각종 심신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갈등에서 오는 긴장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특징이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사소한 갈등에도 아버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하고 좌절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부모에게 쉽게 폭력적일 수 있다. 또한 아이는 자라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욕구를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즉, 불편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부모가 모든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Steinmetz, 1979). 또한, 부모에게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보다 친구와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특징을 보였으며(김광일, 고복자, 1987), 아동의 공격성은 폭력경험보다 폭력관찰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치영, 1988). 이렇듯 많은 연구에서 자녀에게 행하는 부모의 폭력 뿐 아니라 자녀가 부부간의 폭력을 접하는 것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이것은 세대에 걸쳐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문제

- 1) 가정의 지위환경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폭력 정도는 어떠한가?
- 2) 가정의 구조환경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폭력 정도는 어떠한가?
- 3) 가정의 교육환경에 따라 청소년의 부모폭력 정도는 어떠한가?
- 4)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환경변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이외의 가정환경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14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들

중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 본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시요령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 5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현재 보호관찰소의 청소년들에게 『부모폭력측정 설문지』 320부를 배부하였다. 총 260부를 수거하였으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47명이었다. 2차적으로 추출된 147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행동에 관한 설문지』를 상담자가 직접 청소년에게 배부하고 조사된 설문지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차, 2차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 중 130부만이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부모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1) 가정 내 폭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 내 폭력의 측정도구는 Straus와 Gelles(1990)의 Conflict Tactics scales(CT) 중 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상황에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문항에 관한 부분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T는 폭력 정도가 낮은 문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들을 각 행동의 빈도 즉 '전혀 없음' (0점), '1년에 한 번' (1점), '1년에 2~3번' (2점), '한 달에 한 번 정도' (3점), '한 달에 한 번 이상' (4점)으로 측정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부나 모에게 폭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면 0점이고 폭력 정도에 따라 최고 점수가 각각 40점이다. 그러나 CT는 폭력 정도에 따라 점수 차이를 주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부모폭력 정도의 분석방법은 폭력의 빈도수가 모든 문항에서 '전혀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폭력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1번, 2번, 3번 문항 중에서 어느 한 문항이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단, 4번 문

항 이상에 대해서는 '전혀 없음'으로 응답해야 함)는 '약한 폭력'으로 보았으며, 4번 문항 이상에서 '1년에 한번'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는 '심한 폭력'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CT는 가정 내에서 청소년이 부모를 폭력하는 정도와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정도, 부모가 서로에게 보인 폭력을 관찰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값은 부모 폭력 정도(20문항)에서는 .71, 폭력경험(10문항)은 .93, 폭력관찰(10문항)에서는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가족체계유형

가족체계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ner, 및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FACESⅢ)를 연구목적에 맞게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Ⅲ는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정도를 평가하고 동시에 가족 체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가족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체계유형은 응집성과 적응성수준에 따라 균형가족, 중간범위 가족(중상범위가족/중하범위가족), 극단가족으로 나뉘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의 평균으로 구별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계수는 응집성(10문항)은 .82였고, 적응성(10문항)은 .71이었으며, 척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는 .86이었다.

3) 가정교육

왕석순(1997)은 가정에서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정교육내용'을 추출해 내어, 양적 척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폭력 연구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가정교육내용을 왕석순(1997)의 가정교육내용 66항목 중에서 22항목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가치관 교육, 사회공동체적 생활교육, 부모-자녀 관계 교육, 가족의 생활문화 교육, 자기 생활관리 교육, 친구관계 교육에 관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서 많은 가정교육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22문항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 α 계수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자료의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가족체계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Olson 등(1992)이 제시한 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검증시 각 변수와 청소년의 부모폭력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적률 상관관계,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증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하며, 자료분석은 SPSSWIN(Versio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성별은 남자가 69.2%, 여자가 30.8%였으며, 연령은 청소년이 본 연구의 대상자이므로 14세에서 2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학생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 14-16세는 39.2%였고, 17-20세는 60.8%였다. 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3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 중퇴가 20.0%로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부의 직업은 사무직이나 자영업자인, 피고용 기술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9.0%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졸업도 19.6%나 되었으며, 대학교 졸업은 6.6%로 미비하였다. 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0.6%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졸업이 23.3%를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답한 경우가 56.9%, 중하는 32.3%, 중상은 4.6%로 나타나 중상, 중간, 중하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93.0%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인	내 용	빈도(%)
성별	남자	90(69.2)
	여자	40(30.8)
연령	14세-16세	51(39.2)
	17세-20세	79(60.8)
학력	중학교 재학	18(13.8)
	중학교 중퇴	26(20.0)
	중학교 졸업	6(4.6)
	고등학교 재학	42(32.3)
	고등학교 중퇴	12(9.2)
	고등학교 졸업	24(18.5)
부의 직업	전문직·관리직	14(12.1)
	사무직·자영상공인	32(27.6)
	피고용 기술자	28(24.6)
	노동생산직	22(19.0)
	무직	20(17.2)
부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24(19.6)
	중학교 졸업	18(14.8)
	고등학교 졸업	72(59.0)
	대학교 졸업	8(6.6)
모의 학력	초등학교 졸업	16(13.3)
	중학교 졸업	28(23.3)
	고등학교 졸업	72(60.0)
	대학교 졸업	4(3.3)
주관적 생활수준	상위	2(1.5)
	중상 정도	6(4.6)
	중간 정도	74(56.9)
	중하 정도	42(32.3)
	하위	6(4.6)
계		130(100)

2. 부모폭력의 정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폭력의 정도를 약한 폭력과 심한 폭력으로 나누었다. 즉, 약한폭력은 갈등상황에서 언어나 행동으로 혐오감, 적대감, 모욕감 등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징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고, 심한 폭력은 갈등상황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위협하거나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표 2〉 부모폭력의 정도

부모폭력 정도	빈도 (%)
약한 폭력	92(70.8)
심한 폭력	38(29.2)
계	130(100)

연구결과, 부모폭력 정도가 약한 폭력을 보인 경우는 70.8%로 나타났고, 심한 폭력은 29.2%이었다.

3. 폭력 대상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

부모폭력의 대상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는 〈표 3〉과 같이 차이를 보였다. 폭력 대상이 모일 경우 56.9%가 심한 폭력을 보였고, 43.1%가 약한 폭력을 보였다. 그러나 폭력 대상이 부일 경우는 46.7%가 심한 폭력을 보였고, 53.3%가 약한 폭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약한 폭력은 부에게 많이 행사하고, 심한 폭력은 모에게 더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모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의 표적으로 모가 훨씬 많다는 결과들(Agnew & Huguley, 1989; Cornell & Gelles, 1982; Yoshihiro Narita, 1995)과 일치한다. Cornell & Gelles는 일반적으로 부모폭력의 대상이 주로 모가 되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모는 부에 비해 공격적인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신체적,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장과정 중 이미 가정 내 다른 폭력에서 모가 적절한 표적임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다(서미경, 1997, 재인용).

〈표 3〉 폭력대상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 빈도(%)

폭력정도	대상	
	모	부
약한 폭력	56(43.1)	64(53.3)
심한 폭력	74(56.9)	56(46.7)
계	130(100)	120(100)

4. 가정의 지위환경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

가정의 지위환경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SES(사회경제적 지위)¹⁾의 총점수를 새로이 산출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지수로 하였다(홍두승, 1983; 이숙, 1988). 전체 사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상, 중상, 중하, 하의 네 집단으로 나누어 빈도를 산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포는 <표 1>의 주관적 생활 수준의 결과와 비슷하다. 그 결과는 중상층이 5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하층이 19.6%로 나타났으며, 하류층이 15.7%, 상류층이 9.85%로 나타났다. 즉 부모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집단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상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²⁾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는 <표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약한 폭력과 심한 폭력을 나타내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폭력정도는 어느 한 계층에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계층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포

구 분	범위	빈도(%)
상 (평균+SD이상)	16-14	10(9.8)
중상 (평균부터, 평균+SD)	11-13	56(54.9)
중하 (평균-SD부터 평균)	9-10	20(19.6)
하 (평균-SD이하)	4-8	16(15.7)
전 체	평균 : 10.94, SD : 2.52	

<표 5>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

구분 폭력정도	빈도(%)				
	상	중상	중하	하	계
약한 폭력	8(80.0)	40(71.4)	16(80.0)	10(62.5)	74(72.5)
심한 폭력	2(20.0)	16(28.6)	4(20.0)	6(37.5)	28(27.5)
계	10(100)	56(100)	20(100)	16(100)	102(100)

$\chi^2=1.683(p=.641)$

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5. 가정의 구조환경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

<표 6> 가족체계유형별 빈도

구 분	빈도(%)
극 단 가 족	20(16.1)
중하범위가족	40(32.3)
중상범위가족	42(33.9)
균 형 가 족	22(17.7)
계	124(10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가족체계유형은 중상범위가족은 33.9%, 중하범위가족은 32.3%로 중간가족이 많이 나타났으며 균형가족은 17.7%, 극단가족은 16.1%로 나타났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극단가족을 중하범위가족, 중상범위가족, 균형가족과 비교해 볼 때, 약한 폭력보다는 심한 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표 6)는 중상범위가족과 중하범위가족의 수가 극단가족보다 많았지만, 부모폭력정도(표 7)에서는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좀더 강도가 높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SES(사회경제적 지위)의 지수 산출 근거

- ① 부모의 학력: 교육수준별로 1점-5점까지로 평점
- ② 부의 직업: 직업 위치에 따라 무직 0점에서 전문직 5점까지로 평점
- ③ 가족의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가 1점에서, 50만원씩 증가시켜 350만원 이상 6점까지로 평점

2) SES(사회경제적 지위) - 서열척도의 연속변인화

서열척도의 경우 불연속적 개념과 연속적 개념 두가지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열척도는 연속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마치 그것들이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한다(장상희·홍동식 공역 「사회통계학-원리와 실제」, 1984, 33-34). 따라서 SES지수 산출을 위해 사용된 학력, 직업, 총소득의 서열변인은 연속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점수화한 것이다.

<표 7>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차이

빈도(%)

폭력정도	구분	극단가족	중하범위가족	중상범위가족	균형가족	계
약한 폭력		8(40.0)	30(75.0)	32(76.2)	16(72.2)	86(69.4)
심한 폭력		12(60.0)	10(25.0)	10(23.8)	6(27.8)	38(30.6)
계		20(100)	40(100)	42(100)	22(100)	124(100)

$\chi^2=9.750^*(p=.021)$

결국 가족 기능에서 극단의 수준은 가족구성원의 건전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개인 병리와 관계된다는 Olson의 가설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임용우(1984)는 가족체계유형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균형가족보다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6. 가정의 교육환경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

가정의 교육환경과 부모폭력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적률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1) 가정교육과 부모폭력 정도와의 관계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상관계수가 -.2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부모폭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정교육이 인간형성의 중요한 선행조건이 됨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기초적인 인격은 종단적 연구들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그것이 훗날 성인으로서의 생활에서 반응적이고 창의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때까지 계속하여 그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

<표 8> 가정의 교육환경과 부모폭력 정도의 상관관계

변 인	부모폭력 정도	p
가정교육	-.222	.012
폭력관찰	.557	.000
폭력경험	.461	.000

러하다.

2) 폭력관찰과 부모폭력 정도와의 관계

<표 8>과 같이 상관계수가 .557로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폭력관찰이 많을수록 부모폭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부가 모를 폭력하는 것을 보고 자란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모를 폭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은 부의 폭력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증오하면서도 모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학습하여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Cornell & Gelles, 1982).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모폭력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3) 폭력경험과 부모폭력 정도와의 관계

<표 8>과 같이 상관계수가 .46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부모폭력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와 함께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비행자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자들에 비해 가족이나 부모에게 더 많은 폭력을 보인다(Kratcoski, 1984)는 연구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결국 부모에 대한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부모폭력에 대한 가정환경변인의 영향력

가정환경변인들 중에서 어떤 변인이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력과 설명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

〈표 9〉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부모폭력 정도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부모폭력정도			
	B	β	Partial R ²	유의확률
폭력관찰	.306	.476	.335	.000
가족체계유형	-1.198	-.227	.041	.012
회귀상수	11.391			
R ² (수정된 R ²)	.376(.363)			
F값	29.748***			

*p<.05, **p<.01, ***p<.001

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³⁾을 실시하였다. 가정환경 변인은 가정의 지위환경 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구조환경 변인인 가족체계유형, 가정교육환경 변인인 가정교육, 폭력관찰, 폭력경험으로써 총 5개의 변인이다. 여기서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위하여 가정의 구조환경 변인인 가족체계유형⁴⁾을 연속변인으로 처리하였다.

결과는 〈표 9〉와 같이 가정의 교육환경인 폭력관찰과 가정의 구조환경인 가족체계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관찰과 가족체계유형은 부모폭력 정도에 대해 37.6%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 중에서 폭력관찰의 설명력은 33.5%이고, 가족체계유형은 4.1%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즉, 가정의 교육환경 중에서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을 관찰한 것이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폭력경험도 폭력관찰 못지 않게 청소년의 부모폭력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배제된 이유는 폭력관찰과 폭력경험간의 높은 상관관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높으면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떨어진다(김두섭, 1993). 본 연구결과에서 확실히 나타난 것은 폭력관찰이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직접 경험한 폭력보다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을 관찰한 것이 부모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Kalmuss, 1984)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8. 면접내용 요약 및 분석

1) 면접내용 요약

〈사례 1〉

만 18세로 공고 2학년 자퇴 상태이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이 지내게 된 계모와 친부랑 함께 살고 있다. 집에는 계모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 잘 들어가지 않고, 지금은 친한 친구집에서 지내고 있다. 형제없이 무녀독남이고, 아버지가 막노동 일을 해서 살고 있다.

평소에 아빠는 굉장히 민주적인 편이나, 새엄마는 독재적인 편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빠는 훈계위주인 반면, 새엄마는 욕을 하고 때린다.

우리집에는 별다른 규칙은 없지만, 식사할 때 예절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 할머니와 9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로부터 어른 공경에 대한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다. 또한 고1때까지는 귀가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고2 초반에 내가 일주일동안 가출한 이후로는 몇시에 들어오든지 상관을 안한다. 그러나 새엄마는 내가 집에 있을 때 너무 간섭이 심해서 죽이고 싶은 때도 있다. 아빠와는 매우 친해서 가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새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며, 또한 세상살이에 대해 많이 말한다.

중학교 때까지 귀가시간이 7시였는데, 그때까지 안들어 온다고 새엄마한테 부지기로 맞았었다. 아빠와 새엄마가 자주 싸우지는 않지만 싸우면 모두 나 때문이고, 최근에는 새엄마가 돈을 쥐 준 집이 부도가 나서 아빠가 상을 엮고 한바탕 난리가

3) 단계별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종속변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부터 단계별로 변인을 선정하고, 각 단계에서 선정된 변인들 중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거 가능한 변인이 발견되면 그 변인을 제거하면서 단계별 회귀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중공선성이 있는 여러개의 변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 하나만 모형에 포함시키며, 잔여분산도 다른 방법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관하여 더 안전하다(김호정, 1993; 안상형·이명호, 1993).

4) 가족체계유형의 연속변인화

가족체계유형은 응집성과 적응성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균형가족에 가까워지므로 연속변인 처리가 가능하다.

났었다. 내가 새엄마와 싸우는 것은 새엄마의 이상한 성격 때문이다. 한번 약점을 잡으면 한달 동안 그 얘기를 하는데, 몇 일 전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소리지르고 욕을 하며 새엄마를 밀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몇 일 동안 새엄마와는 말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은 때려 본 적이 없다. 화가 나면 그냥 벽을 치거나, 중학교 때는 너무 속상해 미칠 것 같아서 내방 안에서 울어버린 적이 있었다.

〈사례 2〉

만 16세로 학력은 중학교 3학년 중퇴. '빠끼'를 하고 있다.

3남 1녀 중에 막내이며, 엄마는 현재 남대문 시장에서 식당 주방일을 하고 계시고, 아빠는 내가 유치원 때 돌아가셔서 엄마와 누나와 두명의 형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대부분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한달동안에 집에 들어가는 날은 열흘도 안된다.

집에 들어가도 엄마하고는 별로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깐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열받는다. 엄마가 나를 포기한 것 같아서...

나는 엄마와 사이가 매우 안좋고, 둘째 형과 제일 친하다. 엄마는 나만 보면 남의 것에 손대지 말고, 남 때리지 말라는 말만 한다. 이런 엄마의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부모라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고, 돈 많이 벌어서 번듯한 집에서 살고, 공부도 많이 가르칠 것이다. 현재 학교도 다시 다니고 싶기도 하고 기술학교에 다니면서 배우고 싶기도 한데,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 한글을 배워야 하기는 하는데 귀찮아서 안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 치고나서 엄마한테 뺨을 맞았다. 나도 화가나서 엄마를 밀쳐버렸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밖에 나가서 연탄재를 부수었다. 중학교 때 패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나를 불신하는 것 같다.

〈사례 3〉

만 19세인 남자 청소년. 신촌에 있는 소주방에서 지배인일을 하고 있다.

아빠와 엄마는 작년에 이혼하셨고, 나는 아빠,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말이 아빠와 사는 것이지, 아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가 밥을 굶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는다. 집에는 쌀만 있고, 반

찬은 고추장이 전부다. 아빠는 당구장을 하고 있고, 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며 범생이다.

나는 엄마와 살고 싶지만, 엄마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잘라 말해버리는 바람에 다시는 말도 못꺼내고 있다. 엄마도 보험회사에 다니므로 바쁘기 때문에 만날 기회도 별로 없다. 동생과 나는 친한 편이지만, 내가 동생을 돌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생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다. 우리가족은 모두 함께 모일 때가 별로 없고, 모여도 얘기를 주고 받는 적은 거의 없다. 엄마는 나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이제 엄마도 나에 대해 포기한 것 같다.

얼마전 술을 먹고 남의 차 유리창을 깨서 아빠한테 맞았었다. 나는 술만 먹으면 일을 친다. 그러나 술없인 난 살 수 없다. 술을 먹어야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이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도 많이 싸웠고, 아빠가 엄마에게 손찌검을 자주 했었다. 나는 엄마, 아빠한테 직접 때린 적은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돈을 안 줘서 소리지르고 물건을 던진 적은 많다.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지만 나의 행동을 자제할 수 없다. 친구들을 때린 적은 없지만, 후배는 눈에 거슬리게 굴어서 때린 적이 몇 번 있다. 난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때려부순다. 요즘은 이런 행동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된다.

〈사례 4〉

만 15세인 여자 청소년. 친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의 새아빠와 엄마랑 같이 산다.

나는 작년까지는 강원도에서 엄마, 새아빠, 남동생, 아빠가 데려온 여동생과 함께 살았었지만, 지금은 새아빠가 꼴도 보기 싫어서 서울 외할머니와 살고 있다. 얼마전 새아빠의 사업이 망해서 동생들은 나와 함께 지내고 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매우 잘 이해해 주시고, 친구처럼 대해 주시며, 내가 원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는 편이다. 그러나 새아빠는 내가 하는 것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 또한 젊었을 때 유도를 해서 그런지 잘 때린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집을 나왔다. 엄마는 나를 믿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기는 하지만, '일찍 다녀라',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라', '밤늦게 전화하지 마라'는 잔소리는 노상 하신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해주는 편이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쓸데 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항상 나쁜 짓하지 말고 남자 조심하라는 그러는데, 나도 다 컸고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중학교를 2학년 때 자퇴하고 나서 그냥 지내고 있지만, 미용학원이나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고 싶다. 엄마는 내가 미용기술을 배워서 미용사가 되길 원하시고, 이 정도면 엄마가 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다. 내 딸이 나갈으면 난 가뉘웠을 것이다.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은 내가 2년전 가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그 때 새아빠가 뺨을 때렸었고, 엄마는 내가 담배피는 것을 알았을 때 때렸었다.

엄마와 새아빠가 싸우는 것은 모두 나 때문이다. 내가 아빠 대접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새아빠가 엄마에게 소리지르고 트집을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싸움을 말리다가 화가 나서 새아빠를 밀어버렸다. 새아빠만 없으면 내가 집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사례 5〉

만 17세인 여자 청소년. 현재 낮에는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고, 밤에는 친구들과 춤연습을 하고 있다. 내 꿈이 백댄서이므로 춤 연습을 하는 것이고, 미용학원은 엄마가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빠와 엄마는 내가 3살 때 이혼했고, 그 이후로 아빠와는 연락이 없다. 엄마는 자동차 세일즈를 하셨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다. 요즘 엄마가 놀고 먹는 이상한 아저씨를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재수 없어서 엄마와 자주 싸웠다. 집을 나가고 싶다.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에 갔는데, 며칠 후면 오빠가 휴가 나오니까 집을 나올지를 오빠와 상의해서 정할 것이다.

엄마는 나를 잘 이해해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춤을 추는 것도 그렇고, 자퇴한 것 등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엄마가 나를 학교에 복학시키지 않고 미용학원을 보내는 걸 보면, 나에게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엄마가 나에게 관심도 많고 믿어주시지만,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 밖에서 친구들과랑 지내면서 놀고 싶다.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중3때까지 나에게 너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짜증났었는데, 요즘은 많이 잔소리가 줄었다. 주로 엄마는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 나쁜 물에

서 놀지 말아라, 내가 돈을 펑펑 쓰니까 김소하게 살아라 등의 얘기를 많이 하신다.

엄마는 성격이 급해서 어려서부터 오빠와 나를 잘 때렸었다. 때로 맞은 적도 있고, 주먹으로 맞은 적도 있다. 얼마전 함께 사는 아저씨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욕하고 발로 차는 등 대판 싸운 적이 있다. 그래서 외박을 했었고, 요즘은 이틀에 한번은 외박이고, 외박하면 친구네 집에서 있는 것이다. 내가 원래 열 받으면 참지 못해서 학교다니 때도 후배를 때린 적이 있었다.

현재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만 없으면 나도 차하게 살텐데 그런 인간들만 보면 꽤 죽이고 싶다.

2) 면접내용 분석

면접한 청소년의 부모는 공교롭게도 한쪽 부모가 사망했거나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과 사례4의 청소년은 한쪽의 친부모가 사망한 후 부모가 재혼을 하였으나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있다. 사례3과 사례5는 부모가 이혼을 하여 사례3은 친부와 동거하고 있고, 사례5의 청소년은 재혼한 친모와 동거하고 있다. 사례2의 청소년은 친부가 사망한 후 친모와 동거하고 있다. 이처럼 5명 중에서 3명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만, 동거하고 있는 청소년도 대부분 부모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았다. 특히 계부나 계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대부분 계부나 계모였으며, 친부모보다는 심한 폭력을 보였다. 이는 계부나 계모를 자신의 부모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없이 쉽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가정교육태도에 대해서는 면접한 청소년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와 모의 가정교육태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례1, 사례4). 즉 한쪽 부모가 청소년에 대해 매우 허용적인데 반해, 다른 한쪽 부모는 독재적이고 체벌적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사례1과 사례4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사례2, 사례3, 사례5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다. Olweus(1980)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관심의 부족은 신체적 처벌보다 자녀의 성격발달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부모의 불일치한 교육태도와 무관심, 신체적 처벌은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면접한 모든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했고, 또한 폭력을 관찰했다.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 처벌이었다. 무심코 행했던 부모의 신체적 처벌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즉, 폭력의 경험과 관찰이 직접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정에서의 무의도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에 대해서 사례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부모에게 폭행을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폭력행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이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청소년의 부모폭력을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라고만 단정지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다시 한번 지각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환경변인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자는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가정의 지위환경은 청소년의 부모폭력 정도와 상관이 없음을 볼 때, 청소년의 부모폭력은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어느 가

정에서나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극단가족의 청소년들이 심한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결과는 청소년들의 부모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전한 가정환경을 만들어 가는 부모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극단가족은 서로간에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고 목표나 욕구가 차단되어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은 불안,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의사소통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너무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그 노력이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공유하는 생활경험을 통해서 응집성을 높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타협과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수행이 확실하고 분명한 규칙을 확립하여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가정의 교육환경은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모신념에 의한 의도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의 생활의장에서 경험하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무의도적인 교육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그것은 폭력관찰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면접한 결과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청소년들의 부모의 교육태도는 일관성이 없거나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체벌적인 것으로 나타남을 미루어 볼 때, 이런 가정교육은 자녀의 성격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대부분 타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부모폭력은 가정 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이행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감정 및 분노조절이 중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바람직한 분노표출 및 분노조절 방법 등에 관한 조기교육이 필요한데, 청소년의 부모폭력이 비단 비행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현실의 심각성과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의 교육적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폭력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폭력관찰이었으므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교육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의도적인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무의도적인 학습을 뒷받침하는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광일 외(1987). 가정폭력. 서울: 탐구당.
- 2) 김두섭(1993).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서울: 법문사.
- 3) 김현우(1997). 사회정신의학적 측면에서 보는 패륜. 대한의학협회지 제 38권 9호.
- 4) 김호정(1993). 사회과학통계분석. 서울: 삼영사.
- 5) 노치영(1988). 가정 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6) 법제처(199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제. 통권 제 481호.
- 7) 서미경(1997). 정신분열병 환자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8) 신태창(1984).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특별시 가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 9) 안상형, 이명호(1993). 현대통계학. 서울: 학현사.
- 10) 왕석순(1996). 아동기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 11) 왕석순(1997). 청소년기 자녀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가정교육 내용에 관한 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2호, 71-85.
- 12) 유안진(1994). 증보유아환경론. 서울: 창지사.
- 13) 이영석(1994). 동적가족화(kfd)에 의한 청소년의 가족지각과 가족 체계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14) 임용우(1984). 가족체계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5) 장상희 홍동식 공역(1984). 사회통계학-원리와 실제-. 서울: 박영사.
- 16)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17) 전병재(1991). 사회심리학-관점과 이론-. 서울: 경문사.
- 18) 정원식(1995).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19) 정충영, 최이규(1997). SPSSWIN을 이용한 통계 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20) 조선일보(1997). 가정폭력 처벌 강화. 11월 18일자.
- 21) 중앙일보(1997). '부모폭행 자녀'에도 관심 가져야. 3월 16일자.
- 22) 지영숙, 이영호(1996). 가정교육의 태도와 가정건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77-90.
- 23) 추영관(1993). 과활동성 아동이 부모의 역할 긴장, 역할 수행능력, 가족 체계 유형지각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24) 홍두승(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 연구-한국 표준직업 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5권 3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69-86.
- 25) Agnew, R., Huguley, S.(1989).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699-711.
- 26)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27) Cornell, C.P., Gelles, R.J.(1982).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5, 8-14.
- 28) Gelles, R.J., Straus, M.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rgration.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1)*, eds. by Wesley R.Burr, Reuben Hill, F.Ivan Nye and Ira L. Reiss. New York: Free Press.
- 29) Kalmus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30) Kratooski, P.C.(1984). Perspectives on intrafamily violence. *Human Relations*, 37, 443-454.

- 31) Kratcoski, M., Volavka, J., Brizer, D.(1986). Psychopathology and violence: A review of literature. *Comprehensive Psychiatry*, 27, 131-148.
- 32) Olson, D.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Ⅲ,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33)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1992).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34)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u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35) Peek, C.K., Judith, F.L., Kidwell, J.S.(1985). Teenage violence toward parents: A neglected dimension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1051-1058.
- 36) Steinmetz, Suzanne K.(1993). The abused elderly are dependent: abused is caused by the perception of stress associated with providing care. In *Current controversies in family violence*, eds. by Richard J Gelles, Donileen D Losek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37) Straus, M.A.(1990).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88.
- 38) Yoshihiro Narita(1995). Family violence in Japan: Particularly childrens' violence against their parents. Paper presented at 5th Scientific Meeting of Asian Academy of Cultural Psychiatry, Tokyo, Japan.